

현안연구 2023-13

2023. 10. 31.

한글문화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재민·안용준 외

연구책임

- 이재민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 안용준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실장)

연구지원

- 송다빈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위촉연구원
- 채진영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조사원

현안연구 2023-13

한글문화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홈페이지: www.dsi.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44-868-3537 Fax. 044-868-356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요 약	5
Ⅰ. 도시 지명으로서 세종	6
Ⅱ. 행정 조직 구성과 연구수행을 통한 체계 마련	9
Ⅲ. 한글을 활용한 공간형 콘텐츠와 문화예술	10
Ⅳ. 한글문화 수도로서 세종시 비전 제안	12
Ⅴ. 제언	18
참고문헌	19

요 약

세종시는 도시지명으로서 '세종'으로 정해짐에 따라, 한글도시로서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는 이를 더욱 강화하는 '한글문화수도'로 거듭나고자 [세종에 피는 한글꽃]이라는 비전과 '한글을 누리는 시민·한글을 가꾸는 공간·한글로 채우는 생태계' 등의 전략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제안하였음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세종시 출범 이후 2030년 완전한 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담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세종시는 도시 지명으로서 '세종'이 정해짐에 따라 한글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수도와 함께 한글문화의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기대되고 있음

■ 연구목적 및 내용

- 한글문화수도로서 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적 단계의 기본구상을 진행
- 추진 전략을 세우고, 전략별 세부사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결과

- 세종시라는 도시 지명 선정과정,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활동을 고찰
- 한글문화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과 전략, 세부사업의 기초 단계 제안

■ 정책건의

- 세종시 한글정체성 구현을 위한 시민인식 및 전문가 조사 등 연구과제 필요
- 세종시에서는 시민 인식 확산, 공감을 얻기 위한 지속적 정책 추진 노력 필요

I. 도시 지명으로서 세종

■ 도시 지명 부여를 통한 정체성 구현

-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소성은 ‘세종’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는 순간부터 이에 대한 인식이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과거의 이 지역은 연기·공주·청원(청주) 등으로 불리면서 지역적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지만 ‘세종’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면서 새로운 지역의 정체성이 구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
 - ‘세종’은 역사 속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의 왕호(王號)를 의미하며, ‘세종’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순간부터 이 지역에서는 ‘세종’대왕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문화콘텐츠로서 인식 되기 시작하였음

■ 도시 명칭부여 과정

- 세종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도시명칭제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순환 체계를 가지고자 하였음
 - 2006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명칭 2,163개의 명칭 중에서 20개를 추림(도수희, 2006)
 - 추림 20개 중에서 국민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한울·금강·세종’이라는 명칭이 상위 후보로 선정하여 2차 선호도를 진행하였음
 - 2차 선호도 추진 결과 ‘한울’이 1위, ‘금강’이 2위, ‘세종’이 3위를 차지함
- 도시 지명으로 활용되기에는 지리적 명확성, 외래어 번역의 용이성, 객관적 중립성 등이 담보가 되어야 함
 - ‘한울’은 1등으로 선정되기는 하였지만, 한자·영어 등 외래어 표기가 어려우며, 특히 원불 교의 몸체를 나타내는 사전적 의미가 포함되므로 제외함
 - 2등으로 선정된 ‘금강’은 한자·영어 등 외래어 표기는 가능하지만 ‘금강시’라 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이는 금강이 많은 지역을 관통하고 있기에 금강시라고 했을 때, 지리적 명확성이 결여될 수 있어 제외됨
 - 세종은 3등으로 선정되었지만, 선호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부르기가 쉽고, 한자 표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 더욱이 ‘세종’은 ‘세종대왕’의 묘호에서 연유하여 상징적인 가치를 담보하고 있으며, 한문으로도 ‘世宗’이라고 표기가 가능하고, 영어 발음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이름이라는 장점이 있음

<참고자료>

최우수작 도시명칭 제안서

(제안자 : 장효정, 청주, 22세)

도시명칭	세종(世宗)도시	접수번호	1538
제안배경	<p>세종대왕의 치적은 우리민족의 역대 지도자 중에서 최고라고 손꼽히고 있으며 세종대왕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조선을 떠올리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도시적인 이미지가 아닌 자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영토 확장과 국력신장으로 대외로 뻗어나가는 이미지와 안전성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으며 한글 창제, 과학 진흥, 음악 정리 등으로 문화와 첨단 기술에 대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전과 세종대왕의 이미지가 조화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종도시를 제안하게 되었다.</p>		
	<p>◇ 지리적 특성 충남 연기·공주는 국토의 '중심'에 있다. 왕 자체가 한 나라의 '중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세 개의 산은 왕의 왕관의 이미지와도 비슷하다</p> <p>◇ 역사성 세종대왕이 연기군 전의면의 '전의초수'를 드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내용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연기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왕의 물 축제'를 열었다. 공주시 장기면에는 세종 대 4군 6진을 개척한 김종서의 무덤이 있다.</p> <p>◇ 상징성 세종대왕 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의 현재의 영토를 구축했다. 대마도를 정벌하였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독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세종대왕 하면 한반도 전체를 떠올리게 되며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변혁과 발전을 떠올리게 된다.</p> <p>◇ 대중성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며 친근하다.</p> <p>◇ 국제성 한자문화권에서 '世宗'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세상의 으뜸 도시라고 해석 된다. 유네스코의 세종대왕상이나 한글의 우수성으로 국제적으로 세종대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p> <p>◇ 도시특성 백성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같이 내적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함을 드날리는 도시를 의미한다.</p>		

[그림 1-1] 도시 지명 최우수작 제안서

■ 도시 명칭부여를 통한 스토리텔링

- 세종시로 명칭이 부여된 이후, 세종시 지역에서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진행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이곳은 세종대왕과 관련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음
- 임영수(2007)는 연기군의 세종대왕 유적지를 아래와 같이 논의함
 - 세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세종대왕의 눈병을 고친 전의면의 ‘왕의물’
 - 고려말 장수이자 과거 연기군의 시조인 임난수(林蘭秀)를 세종대왕은 극진히 대우했으며, 임난수의 아들에게 예장(禮裝)을 내렸음
 - 세종대왕과 동갑내기이자, 정종의 10번째 아들인 덕천군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 있으며, 현재는 장군면에 위치함
 - 세종대왕과 함께했던 김종서의 묘가 현재 장군면에 위치하고, 박팽년의 할아버지가 전의면 관정리, 성삼문의 사당이 금남면 달전리에 위치함



[그림 3-1] 덕천군 사우 / 김종서 장군묘

II. 행정 조직 구성과 연구수행을 통한 체계 마련

■ 조례제정 및 전담조직 구성

-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2014년에 제정하고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조건을 완비하였음
 - 이 조례는 조례의 목적(1조)에서부터 시장의 책무(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5조), 그리고 자문위원회라 할 수 있는 한글사랑 위원회(5조의 2) 등과 함께 한글날 기념행사,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
- 세종시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글진흥을 위한 전담조직인 ‘한글진흥담당’을 신설하였는데, 시정 4기에는 미래전략본부로 통합되어 한글진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연구수행을 통한 가이드라인 설정

- 세종시는 한글진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글사랑 5개년 추진계획」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함
 - 이 연구에서는 ‘지역’, ‘융합’, ‘시민’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 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음
 - 연구의 추진전략으로 아래의 다섯 가지로 제안함
 - (사업기반 구축) ‘한글사랑 도시’ 기반 마련 및 ‘한글 사랑’ 활동 시작
 -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민참여형 ‘한글사랑’ 프로그램 기획, 개발
 - (사업 확장) ‘한글사랑 도시’ 대표성 확보, 국내외 한글사랑 공모 진행
 - (한글사랑 생태계 구축) ‘한글사랑’ 브랜드 상품, 관광상품 개발
 - (사업종료 및 지속기반 마련) 5년 차 사업종료 및 지속기반 마련
-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시는 2021년 4월 ‘한글사랑도시 조성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음
 - (비전)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도시 세종
 - (목표) 한글사랑도시 기반 조성
 - (추진 방향) ①한글로 누리는 세종, ②한글로 가득한 세종, ③한글이 보이는 세종

Ⅲ. 한글을 활용한 공간형 콘텐츠와 문화예술

■ 한글을 활용한 공간형 콘텐츠

- 세종시는 한글진흥의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한글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테마거리, 시설물 등 공간형 콘텐츠를 조성함
 - 한솔동 훈민길·정음길을 대상으로 한글사랑거리를 조성하였음
 - 시청 야외 주차장에는 훈민정음 보도블록, 한글 자음 형상의 벤치를 설치하였음
 - 시청 4층에는 책문화센터 구축 운영 공모사업을 통해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를 조성하였음
 -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축물은 한글 자음 ‘ㅅ, ㅈ’을 형상화했으며, 보람동 광역복지지원센터의 벽면에는 한글을 나열한 디자인을 적용하였음



[그림 3-1] 반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 / 한글사랑거리(한솔동) / 한글사랑세종책문화센터(세종시청 4층)

■ 한글을 활용한 문화예술

- 세종시는 한글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글을 예술로 구현하였으며, 시민참여형 축제·이벤트를 추진함으로써 시민 인식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특히 세종축제에서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한 ‘세종가족한글플래시몹’을 진행함으로써 이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그림 3-2] 한글관련 공연 / 전시 / 세종축제 때 진행된 플래시몹

[표 3-1]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했던 공연, 전시, 축제·이벤트

공연	(2018) 뮤지컬「한글꽃내리고」
	(2020) 기획공연 「세종대왕이 꿈꾸던 여민락」
	(2021) 기획공연 「별 헤는 밤 빼앗긴 들에서 꽃처럼 침묵을 깨다」
	(2022) 뮤지컬 「세종, 1446」
	(2023) 국립합창단 「훈민정음」
전시	(2019) 「문자예술」
	(2021) 「한글꽃이피었습니다」
	(2021) 「한글, 점으로부터의 빛」
	(2021) 「세종대왕과 음악, 여민락」
	(2022) 「우리글 온누리를 비추다」
	(2022) 「우리글과 함께하는 세계문자서예전」
	(2023) 「읽을 수 있는 그림」
	(2023) 「파란 마음 하얀 마음」
(2023) 「뜻 밖의 한글」	
축제·이벤트	(교육) 「찾아가는 문화학교」, 「다문화 한글교육」
	(경연대회) 「번개춤사위」, 「한글노래」
	(공모전) 「우리말 간판」, 「상징문구」, 「한글디자인」
	(체험) 「한글골든벨」, 「한글놀이터」

IV. 한글문화 수도로서 세종시 비전 제안



[그림 4-1] 한글문화수도 비전, 추진전략, 세부사업 제안

■ 비전 :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 한글문화 수도로서 세종시의 비전을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로 제안하고자 함
 - 한글문화 수도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하기 위한 비전으로서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로 설정하고자 함
 - 한글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느끼고, 디자인적이며 심리적 가치를 최대한 이끌어 내어 활용하는 의미로 이같이 비전을 설정하고자 함
 - 한글문화수도로서의 미래적인 가치를 담보하고, 시민 인식 확산을 도모하며, 나아가 한글을 활용한 도시브랜딩을 제안하고자 함
 - 무언가를 ‘그리는’ 문학적 표현을 통해 시민 감수성을 자극하고, 심리적 공감을 얻고자 함

■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한글을 누리는 시민) 한글을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누리고,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1-1) 한글, 축제가 되다.
 - 세종대왕 탄신 날 축제의 확대
 - 세종대왕 탄신 일(5월 15일)을 기념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공연 등을 제공하여 세종대왕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진행함
 - 세종대왕 탄신 일의 시민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한글문화의 거점 도시로서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함
 - 세종축제에서의 한글 활용
 - 세종축제는 세종대표 축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글을 활용한 콘텐츠 적용을 통해 한글도시라는 시민 인식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까지도 한글을 활용한 플래시몹, 전시와 체험, 공연·예술 등 프로그램의 기획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시민이 기획하고, 동네에서 진행하는 한글 축제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하고, 각 동네의 아파트 주차장·근린공원 등에서 열리는 체험형 축제
 - 한글 모양의 블록 쌓기, 한글을 활용한 동네 그리기 등 체험형 축제 개최
 - 한글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축제의 기획과 실천
 - 한글로 소통하는 도시축제, 캘리그래피 대회,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대회, 손글씨 축제 등을 기획할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디지털 기술, 즉 메타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의 한글을 체험하고 활동하는 축제를 기대할 수 있음

○ (1-2) 한글, 누가누가 잘하나.

- 맞춤법 경연대회
 - 미국 철자 맞히기 대회인 Scripps National Spelling Bee에서 착안한 프로그램으로,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법 경연대회임
 -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해력을 제고시키고 한글문화의 중심도시라는 인식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음
- 한글 골든벨
 - 세종시 관내 중학교·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진행되는 골든벨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한글과 세종에 관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한글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시민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한글 문화상품 기획 공모 대회
 - 한글을 주요 소재로 하여 구현된 기념품(캐릭터, 컵, 키링, 엽서 등), 음식물(빵, 쿠키, 젤리 등) 공모대회를 진행함
 -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진행하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업체 및 단체에게는 상품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1-3) 한글이 보이는 도시

- 아름다운 한글 간판 공모전
 - 도시 내 상가를 대상으로 간판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SNS 및 누리집 투표를 통해 최종 우승 상가 선정
 - 최종 우승 상가는 세제 혜택 및 누리집 홍보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한글을 활용한 도시경관 조성
 - 세종시 행정복합도시의 경우 ‘o(이음)’ 형상의 도시 형태로서 환형 구조를 취하고 있어 한글도시 경관으로서 매우 유리함
 -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내부의 경관을 장기적인 입장에서 캘리그래피·타이포그래피·손 글씨 등을 적용함으로써 한글도시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1-4) 한글로 예술하기

- 한글을 활용한 전시·공연 등 예술 프로그램 기획
 - 지역 예술가들이 기획하여 한글을 활용한 전시·공연 등 예술 프로그램임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할 수 있으며, 국립한글박물관 등과도 연계를 통해 작품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음

○ (1-5) 한글로 관광하기

- 지역 내 한글과 관련한 자원들의 연계를 통해 관광콘텐츠 구현
- 가치관광이자 공정관광으로서 언어관광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한글과 관련한 건축물, 세종대왕과 관련한 문화자원의 연계를 통해 (건축 관광콘텐츠)
 - 한글사랑거리 ↔ 복합커뮤니티 시설 ↔ 이응다리 등의 효율적 연계 방안 마련 (세종대왕 관광콘텐츠)
 - 김종서장군역사공원(조성 중) ↔ 전의초수 ↔ 독락정(임난수 장군) ↔ 문절사(성삼문)
-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인 AR 증강현실 등의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유희적 요소를 제고시킬 수 있음

○ (1-6) 한글날을 시민에게

- 현재 세종시민의 날은 도시 출범일인 7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날은 관주도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시민의 날로 인식되지도 않고 있음
- 따라서 세종시민의 날을 10월 9일 한글날로 지정하여, 한글도시로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세종축제 및 한글주간과 연계하여 문화적으로 풍부한 날로 전환이 필요함

○ (1-7) 일상에서 한글을

- 세종시 특수성을 강화하고, 일상에서의 한글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복합커뮤니티시설의 일부를 한글과 관련한 복합공유공간으로 설정하고자 함
- 이 공간에서는 한글과 관련한 전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반복적이며 장기적인 문화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한글문화를 구현하고자 함

□ (한글로 가꾸는 공간) 한글을 활용하여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적 측면

○ (2-1) 한글을 한 곳에, 한글문화단지

- 한글문화를 집적하고, 교류·확산을 위해 세종시에서는 한글문화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글사관학교·세종학당·세종대왕 및 한글 전시관 등의 공간을 예정하고 있음

○ (2-2) 한글사랑을 담은, 한글사랑거리

- 현재 한솔동에 조성된 한글사랑거리의 추가적인 조성을 진행하여, 일상에서 한글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신도시 권역·읍면 지역 등 지역 내에서 장기적으로 3~5개소까지 조성하는 계획

○ (2-3) 지역의 명소가 되는, 이응다리

- 이응다리에 버스킹 공연·시화전·박람회 행사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구현하여 명소화하고자 함
- 더욱이 이응다리는 올해 말 주요관광지점으로서의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 수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글로 채우는 생태계) 한글문화수도로서 운영·관리적 측면

○ (3-1) 한글사랑 거버넌스

- 한글도시로서 세종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 세종시 담당부서·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전세종연구원 등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협업체계 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 (3-2) 전담 중간지원 조직 마련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또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내에 한글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 이 같은 전담부서 마련을 통해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 (3-3) 한글문화활동가 운영

- 현재 한글보안관을 보완한 것으로, 한글문화활동가 프로그램을 운영
- 일반시민·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한글사랑동아리 및 한글 지킴이 등을 운영하여 아름다운 간판 선정, 한글 경조사 봉투 제작·배포, 공공언어 실태조사 등 한글 진흥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V. 제언

■ 한글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정책 실천이 필요함

- 비록 단기적이며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지속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실천이 필요함
 - 한글 문화수도 창달을 통한 지역 정체성 구현이라는 목적은 단기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아젠다이므로, 꾸준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함

■ 한글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한글문화수도 지향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글의 민주화를 넘어 한글민주주의에 관한 가치지향이 필요함
 - 한글의 민주화는 관이 주도하는 맥락에서 한글에 관한 접근성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글민주주의는 민간 주도의 맥락에서 한글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글민주주의'의 가치지향을 전제로 해야 함

■ 한글영향평가의 기획과 실천

- 세종시 도시정책에서 한글이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연구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환경 분야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복지 분야에서의 성별영향평가, 문화 분야에서의 문화영향평가 등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서의 한글이 정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영향평가연구를 제안하고자 함

참고문헌

- 도수희(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명 제정에 관한 제 문제”, <지명학> 제12권, 69~89.
- 임영수(2007),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세종이라 지어진 이유”, <웅진문화> 제20집, 166~184.
- 이재민(2022), “미래 행정수도 세종, ‘한글’을 품다”, <대전세종포럼> 제80호, 22~33.
- 이재민(2022),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종시 ‘한글사랑거리’ 조성·운영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정책보고서

